

돌블리·은요물·달심·쌈자...예능계 현상수배 스타들

WANTED

연기자 전소민(aka ‘돌블리’)

WANTED

가수 은지원(aka ‘은요물’)

WANTED

모델 한혜진(aka ‘달심’)

WANTED

가수 민경훈(aka ‘쌈자’)

예능의 신 강림...본업을 잊었어

가수나 연기자 등 본업보다 ‘예능인’으로 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다. 바로 연기자 전소민, 가수 은지원, 모델 한혜진, 그룹 버즈의 민경훈이다. 이들은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뛰어난 입담으로 ‘전쟁터’와 다름없는 예능계에서 살아남았다. 각각 다른 매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네 사람의 활동상을 살펴봤다.

돌아이+러블리...‘은두’ 분장 레전드

● ‘돌블리’ 전소민

최대 무기는 사랑스러운 눈웃음과 어디로 뺄지 모르는 거친 입담이다. 숨기고 싶은 연예사부터 실수로 톤 방귀 에피소드까지 아낌없이 쏟아낸다. 그의 예사롭지 않은 ‘솔직함’을 한 눈에 알아본 방송인 유재석은 SBS ‘런닝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전소민을 추천해 2년 전부터 고정 멤버로 활동 중이다. 평소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전소민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팔팔 거렸고 덕분에 ‘런닝맨 돌블리(돌아이+러블리)’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에게 엉뚱함이 기

본이라면, 분장은 옵션이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은두 캐릭터로 변신한 후 활짝 웃는 전소민의 모습은 ‘런닝맨’의 명장면으로 남았다. -유재석의 한마디 : “이 친구, 굉장한 ‘돌아이’예요.”

뛰는 제작진 나는 미친 자...요물이네

● ‘은요물’ 은지원

그야말로 ‘요물’이 따로 없다. 그룹 켄스 키스의 리더 은지원은 오랜 연예생활로 터득한 ‘촉’으로 제작진의 의도를 가볍게 알아챈다. 지난해 방송한 tvN ‘신서유기6’에서 기상미션을 단번에 맞춰 공을 들어 준 비한 제작진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다. 때때로 엉뚱함이 폭주해 ‘미친 자(者)’란 별명도 붙었다. 이 역시 남다른 ‘촉’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 KBS 2TV ‘1박2일’에 출연할 당시에는 앞뒤 재지 않는 모습 등으로 ‘은초당’이라는 캐릭터로 사랑받았지만,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쌓이고 쌓여 ‘요물’로 통한다. 여장도 망설

이지 않는다. ‘신서유기3’에서 초록색 양갈래 헤어스타일로 분장한 상태에서도 ‘미모’를 뽐내 화제가 됐다. -나영석 PD의 한마디 : “야! 너 제작진으로 취업해 그냥!”

패션계·예능계 접수한 화끈한 언니

● ‘달심’ 한혜진

모델 한혜진보다 ‘달심’으로 더 유명하다.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드러난 화통한 성격과 거침없는 입담 때문이다. 함께 출연 중인 연기자 이시언이 한혜진이 화를 낼 때면 불을 내뿜는 듯 격해지는 모습을 보고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인 ‘달심’과 닮았으며 애칭으로 붙여줬다. 그의 최대 매력 포인트인 화끈한 성격은 다른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통하는 분위기다. 최근 시작한 채널A ‘우리집에 왜 왔니’를 비롯해 4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모델 데뷔 20주년인 올해 ‘예능 전성기’를 맞았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김희철의 한마디 : “한혜진은 프로 중 ‘상프

로’ 예능인이죠.”

뭘 해도 뺨 터지는 ‘아무 말’ 최강자

● ‘쌈자’ 민경훈

주변 방송 동료들로부터 “뭘 해도 된다”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공연 중 가사 실수로 생긴 ‘쌈자’란 별명마저 예능 프로그램 속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를 향해 “‘예능 신(神)’이 보호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는 형님’ 등에서 톤금없이 톡톡 내뿜는 말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정답으로 어이할 질 때가 많다. 선배 방송인 앞에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도 매력 포인트다. 김용만을 보며 “형 개그맨이었어요?”라고 놀라는 모습은 그의 당돌함과 엉뚱함이 합축된 명장면이다. -서장훈의 한마디 : “경훈이가 아무 말 20번 하면 그 중 18개가 방송을 탄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3

2019년 6월 14·15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양현석

이번엔 비아이 사태 ‘악의 제국’이 된 YG

양현석 대표 개입 사건 무마 의혹도

또 터졌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국내 3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올해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초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국제청의 대대적인 세부 조사, 최근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까지 불거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논란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비아이(김한빈·23)의 과거 마약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양현석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견잡을 수 없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빅뱅의 지드래곤과 탑의 대마초 흡연 사실에 이어 최근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코카인 구매·투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여기에 비아이의 의혹까지 더해지자 다른 기획사와 달리 소속 가수들의 마약 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YG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중들도 이제는 실망을 넘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아 그동안 YG의 약자가 ‘악국’이라는 오명에 켜기틀 박는 분위기다.

그동안 논란이 불거지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YG가 소속 가수들의 연이은 사건·사고로 타격을 받아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난은 면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잇단 마약 의혹 논란으로 얼룩진 YG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연예계 활동을 정지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YG엔터테인먼트에는 수많은 아이돌 가수들과 배우들, 예능인들이 소속돼 있다”며 “한 기획사에서 마약 의혹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획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모든 방송 매체에서의 연예 활동을 정지시키고 철저히 소속사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화제의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꿀잼’ vs ‘노잼’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화제만발이다.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다. 540억 원의 제작비, 고대를 다룬 판타지, 송중기·장동건 주연에 스타 제작진의 합작까지. 성공을 보장할 법한 ‘조건’에도 반응이 엇갈려 더 화제다. 지금까지 방송한 4회 분량을 샅샅이 살핀 두 기자의 평가도 마찬가지. ‘꿀잼’ 대 ‘노잼’의 의견이 팽팽하다.

퍼즐 맞추는 재미...김원석을 믿어봐 Vs 너무나 낯선 세계...불친절한 드라마

〈연출자〉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향한 시청자 반응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 주인공 타곤 역의 장동건.

기심 만족이다.

‘아라문 해슬라’ ‘감모르’ ‘이그트’ 등 처음엔 마구 뒤섞인 큐브처럼 혼재된 힌트들이 회를 거듭하면서 의미를 드러낼 땐 짜릿하기도 하다. 추리력, 해석력을 한껏 자극하는 ‘다차원’ 드라마란 사실에서 ‘엄지척!’,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출자 김원석 PD에 있다. 지금껏 메인 연출한 5편의 드라마에서 매번 다른 장르와 이야기를 꺼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출자 아닌가.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갖추고도 성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못했다. 역사 이전의 세계,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창조의 세계가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시청자는 그 세계를 따라가는 데 힘겨워 하고 있다. 너무나 낯설고 난해해,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 한 단계씩 이해하고 넘어야 하는 ‘학습’ 비슷한 과정이 요구된다.

그렇다보니 ‘편안 시청’은 바랄 수 없다. ‘뇌안탈’ ‘이그트’ ‘이아르크’ 등 용어도 생

소해 이야기가 단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파란 눈동자와 입술, 보라색 피, 그들만의 언어와 복장 등 독특한 설정이 이질감의 압박을 준다.

제작진의 ‘불친절한’도 시청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 어려운 이야기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이다. 가상의 시대를 다룬 판타지이고, 원작도 없어 사전정보가 부족하다. 오로지 제작진이 풀어가는 이야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충분히 소개해야할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를 방송이 끝난 후 쿠키영상 등을 통해 채우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일부러 찾아볼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최근 드라마들이 ‘고만고만한’ 탓에 이전까지 안방극장에서 접하지 못한 이야기와 영상 등을 선보일 블록버스터의 탄생에 모두 기대했다. 드라마 기획안이 6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아스달 설계에 상당한 공을 들였을 정도다. ‘나의 아저씨’ ‘시그널’ ‘미생’ 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원석 PD와 장동건·송중기·김지원·김옥빈 등의 조합 역시 시청자의 기대를 높이지만 초반 분위기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